

위한 공급기반 육성정책으로 주택정보화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인터넷 정보가전 전문인력 양성, 인터넷 정보가전 콘텐츠 및 서비스 육성 ▲둘째, 시장활성화를 위한 수요기반 육성 정책으로 시범서비스 추진, 대국민 교육 확대 ▲셋째, 환경 및 법·제도 정비방안으로 네트워크 고도화 추진, 차세대 인터넷 주소체계 도입, 인터넷 정보가전 기술기준과 인증제도 정립, 정보가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넷째, 기술개발 및 표준화 정책으로 핵심기술 및 상용화 기술지원, 인터넷 정보가전 표준포럼 구성 및 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공청회의 토론자로는 고려대 강철희 교수, 정보통신부 임종태 과장, 문화관광부 이상일 사무관, 삼성전자 이기원 전무, 대우전자 주영섭 이사, 한국통신 이상일 국장, CVnet 강병찬 사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명준 소장, 전자신문 박재성 논설위원, LG전자 이영진 연구위원 등 1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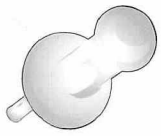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 설명회」 개최

인터넷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된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달 2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협회 주최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란 회원제로 인



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 및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 관련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적합 여부를 평가한 후 최소 기준인 소비자 보호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한 인터넷사이트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행사는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제도 개요, 신청절차, 심사방법, 신청서 작성요령, 마크 취득업체에 대한 특전 안내와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위원회에서 마련한 심사기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 심사기준은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 보안, 소비자 보호 등 3개 분야 총 115개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모든 신청 사업자 및 기관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며 3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반드시 지켜야 할 필수항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15개이다. 반면에 시스템 보안 기준은 신청사업 및 기관에 따라 구분된다. 이에 따라 고도보안이 요구되는 금융기관이나 병원 등은 A그룹으로, 기타 기관 및 일반 사업자는 B그룹으로 각각 다른 심사기준을 적용받는다. 협회 조영훈 인터넷비즈니스팀장은 "마크 취득 사업자 및 기관의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마크사용계약서를 체결하고 마크 부여 당시 심사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마크 부여 취소 및 회수가 가능하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리눅스 2000 전시회 개최

국내 첫 리눅스 전시회인 '글로벌 리눅스 2000'이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리눅스협의회와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주관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 동안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국내외에서 67개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 각종 리눅스 제품을 선보여 국내 업체들이 리눅스의 새로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전시회 첫날 기념식에 참석한 안병엽 정보통신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리눅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만큼 정부도 리눅스의 성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전시회에는 자유소프트웨어재단의 리처드 스톨먼과 오픈소스 운동을 이끄는 에릭 레이먼드 등 자유 소프트웨어 운동의 선구자들이 참여해 관심을 모았다.



회원사 간담회 개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협회)의 한국통신산업협회(이하 통산협) 흡수에 따른 회원사 유치를 위한 간담회가 지난달 15일 타워호텔 로즈룸에서 통산협 회원사인 대덕전자 김성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협회의 설립 목적, 주요 사업, 회원사 혜택을 소개함으로써 통산협 회원사들이 협회 회원사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이를 위해 협회는 통산협 흡수에 따른 협회의 기능확대를 통산협 회원사들에 설명함과



아울러 이날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이 건의한 사항들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회원사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협회 현황 소개와 간담 및 오찬을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